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표 어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년9월20일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1년 5월 1일 (토) 제 805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원)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조 영 철 · 편집인/ 김 병 호

인쇄소 靑丘文化社

어머니주일
설 교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르침, 어머니의 소원

배 정 애 목사 (교토교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과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것은,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께서 건재해 계신다면 참으로 복입니다. 이미 소원하셨다면 생전의 가르침이 남아 있습니다.

5월의 2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한 자녀,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 받는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가르침은,

1.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르라(출20:6, 신4:10, 5:10)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매일 밤 어머니의 사회로 가정 예배가 드려졌다. 설날과 추석 날에는 아침 식사 준비가 끝나면, 아침 식사 전에 전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다. 항상 지키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말씀은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였다.

90세의 어머니는 걷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한국에서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다. 어머니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출 20:6). 그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알 수 있는 견학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만큼 감동을 주는 어머니, 어머니의 한평생은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2.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롬 12:1)

고등학교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저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배우고 싶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앎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쫓겨서 그럴 상황이 전혀 허락이 되지를 않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신학의 문을 열어 주심과 동시에 어머니를 통하여 학비를 보내 주셔서, 그 길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네가 그렇게도 원했던 것인데, 이렇게 학비가 늦어져서 미안하다. 이제 부터라도 네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그 길로 가거라” 고 하셨을 때,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시골에서 노령의 어머니께서 그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얼마나 일하시고, 근검 절약하여 모으셨는지.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라.” 여중이지만,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중’ 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여,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하거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사람에게 말하면, 그 때에는 위로를 받지만, 위로는 그 때 뿐이고 후에는 잡음이 들려온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말하여도 잡음이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 또 주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때로는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사해야 한다. 징계를 받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주님의 침묵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없단다. 절대로 사람을 믿고 따라가서는 안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여쭙어야 한단다.

3. 섬기는 자가 되어라(막 10:35)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받기 위하여가 아니고, 섬기기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것 처럼, 섬기는 자가 되거라. 신앙인은 섬기는 것이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도를 섬기고, 교회에 봉사하고, 어머니가 살아온 것 처럼 절대 겸손의 자세로, 항상 그대로만 살면 틀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예수님’ 을 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오신 어머니입니다. 무언가 걱정거리가 있으면, 자녀들에게 걱정거리가 있으면, 항상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회생도 감수하면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본받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본받는 딸. 딸도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어,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계속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따라 가거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ルツ結婚相談所

在日韓国人・帰化人、結婚・再婚を望んでいる人へ
年齢 23歳～70歳まで、北海道から九州まで

親身になってご成婚までねばり強くお世話を
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気軽にお電話ください。

090-3429-9707 代表 崔貞淑

韓日対照讃頌歌販売



韓国の新讃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B6版変型・1483ページ

●価格：2,500円(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総会事務所へ

어머니주일 특 집

「어머니 예술분(芮戌冀)」

김 순 필 목사



조모(魯毛達)의 환갑 잔치에
모인 9명의 아버지
형제전원과 그 가족들



교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어머니는 2월
2주째

아버지(金相煥)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지 43년, 어머니는 7월11일에 3주기를 맞이한다.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아 최후의 3 년간은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난년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시중을 들었다. 그 무렵,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잘못했어”라고 사과하는 것은 교회에 가는 것을 아버지는 때마다 반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어머니가 신앙 생활이 시작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이다. 아버지의 어머니(魯毛達)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할머니는 이미 2대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기독교인 삼아야 한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 덕택으로 어머니는 매우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훗날 어머니는 할머니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면서 한국 전통의 유교적인 방식으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 일일이 지도하면서 엄격하였지만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것은 항상 도와주셨다면서, “역시 기독교인은 다르다. 하이 칼라였다”며 할머니를 평가했다.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주일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던 때 교회당 안에서 목사와 장로가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일까? 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그만 둔 것이라고 아버지는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는 말 수가 많았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일요일에 버스로 50분 걸리는 京都교회에 가는 동안 나는 근처의 일본기독교단 洛南교회에 다녀온 후 집에서 아버지의 점심을 준비했다. 점심이 끝나면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앉혀 언제나 자신의 고생 이야기나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하였다. 아직 초등학교 또는 중학생이었던 나는 그저 암전히 모두 들을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외로웠던 것이었다 라고.

아버지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폭발할 때가 년 1회 혹은 2회 있었다. 그 중에 한 번은 신년 정초 사경회 때였다. 아뭏든 할머니도 어머니도 성실히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아침 집회에 가고 또 밤 집회에도 가는 것을 몇 일 반복했다. 나는 아버지의 인내가 한계에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무서웠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가지마”라고 말할 수 없었다. 말 해도 들어주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인내가 폭발했다. 그때 나는 내 방에 있으면서 오로지 폭발이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어머니도 교회를 쉬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한 번 있었다. 그 날은 부활절, 그리고 고 2가 된 내가 세례를 받는 날이었다. 전날 아버지의 폭발이 있었고, 어머니는 이날만큼은 교회를 쉬지 않으면 안된다고 결심하고, 그 사실을 나에게 전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에서 어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쉰 것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갈 수 없다. 엄마의 몫까지 예배 드리고 오도록.”

그날의 예배,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리고 이 날부터 나는 지금까지 다니던 일본 교회를 그만두고, 한국 京都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외로우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소천하기 10일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고(집례:양형춘목사) 나도 그 자리에 참여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볼 줄 수 밖에 없다고 항복할 때까지,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려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어머니는 京都남부교회에서 장로로 장립받았다. (1980년). 그 때 까지만 해도 채일대한국교회에는 여성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당연히 된 여성 안수는, 자연스럽게 굴러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 무렵, 정기총회는 일년에 한 번씩 개최되었다. 1974~77년까지 매년 京都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열렸다. 총회 내내 어머니들 여성은 1층의 주방에서 전국에서 모인 목사들과 장로들의 아침, 점심, 저녁식사와 간식을 준비했다. 점심이 끝나고 뒷정리가 끝나면, 여성회(당시는 여전도회)의 멤버 전원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2층 예배당에 조용히 올라 갔다. 그리고 여성에게도 안수를 해달라고 청원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곳은 너희가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목사와 장로의 심한 말로 쫓겨났다. 여성들은 주방에 모여 어깨를 맞대고 울었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물론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설마 자기 자신이 장로로 선출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장로로 장립되고 나서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힘을 모든 면에서 모두 발휘했다고 나는 본다. 전국 여성회가 설립한 노인홈 <색동의 집>, 京都남부교회 건축에 인색하지 않았다. 이런 어머니의 태도는 평소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었다.

일본의 전쟁시에는 하루 300벌 이상의 군인 옷을 꿰매는 노동봉사. 종전 전에 9 남매의 장남과 결혼하여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8 명의 형제 자매와 살았다. 또한 京都로 옮기고 나서는 도금 공장을 경영하고 있던 아버지를 도와 10명 이상의 상주하는 젊은 일꾼들의 식사 및 돌봄. 항상 어머니는 힘껏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지고 나갔던 것이었다. 그러한 불굴의 정신과 태도는 장로가 되고 나서 더욱 더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2018년 7월, 만 95 세에 어머니는 하늘의 부르심.

누구로부터도 존경받는 완벽한 성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머니를 소중하여 여기며 함께 해 주신 京都남부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총회, 상임위원회 개최 ZOOM에 의한 온라인 회의로 심의

4월11일, 주일 저녁에 개최된 제55회기 제2회 상임위원회는 지난번에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회의로 개최되었다. 회의는 11일, 주일 오후6시에 개최되어 24명의 위원중에 21명, 특별위원장 2명이 참가하여 총회장 조영철목사의 개최예배 설교에 이어 각종 보고 및 토의사항이 심의되었다.

중요한 결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임원회 결정사항의 사후 승인의 건으로 서부지방회가 요청한 오카야마교회 종교법인 규칙 변경 승인 요건의 건을 승인했다.
- (2)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가 전회에 상정했던 제9회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 도쿄회의>를 <한/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기도하는 한국·조선·일본 그리스도인 회의>로 명칭변경의 건이 위원회의 재차 심의하여 상정하기로 한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심의하여 같은 명칭으로 다시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KCCJ가 선교 과제로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가졌던 것을 답습하는 학습 등을 가진 후에 차기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 (3)관동지방회가 요청한 가와사키교회의 KCCJ 총회내의 건축비 모금 요청의 건은, 제출된 참고 서류를 바탕으로 500万円の 총회내 교회에 모금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 (4)신학고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제56회 정기총회의 표어 제정의 건은 표어의 단어 표현 등을 다시 한 번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총회 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5)신학고시위원회가 제안한 <목사계속교육> 제도에 관한 건은, 여러가지 의견이 있어서, 총회신학교 등과의 공동 연구를 거쳐 차기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 (6)총회 명의로 되어있는 관동지방회의 미토교회의 방치되어 있는 토지 중에서 부동산으로 부터 5평 매각 요청의 건은, 지방회와 개교회 및 종간사가 연대하여 처분 수속을 밟도록 하였다.
- (7)각 지방회 정기총회에 관하여, 지금의 상황이 초법적인 조치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규칙 개정 절차가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규칙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각 지방회에서 형편에 맞추어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확인했다.
- (8)차기 상임위원회는 2021년9월23일(목) 동경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리모트 성서세미나 개최 전국 각지교회에서 약100명이 참가

2021년 2월 23일 (화) “새 시대를 펼쳐가는 교회여성~코로나 가운데에서의 예배·전도·교제~”라는 주제로 제22회 성경세미나를 리모트로 개최했다. 강사로 타카미자와 에이코(高見澤栄子)목사를 초청하여 참가자 약 100명, 2시간반의 배움의 시간을 전국 각지·각 교회에서 공유할 수 있었다.

코로나 가운데서 크게 변화한 일상생활, 또한 신앙생활의 본연의 자세 등 고민하며 생각할 것이 많은 가운데 다양한 관점, 파악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이 앞으로 더욱 풍성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들,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리모트 설치 등 많은 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보고 : 교육국장 김금순)

사회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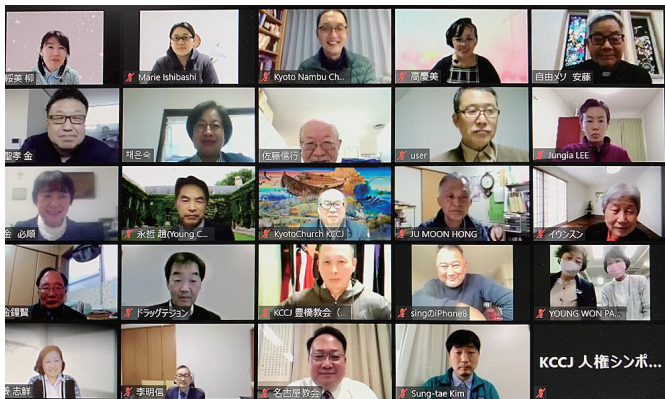
인권심포지엄 개최 입관법 개악에 대해 ZOOM로 토론

제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KCC, RAIK, 서남KCC 주최로 제18회 KCCJ인권심포지엄을 4월 18일(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외국인/난민의 배제에 NO!>라는 테마로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한 곳에 모여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없어서 ZOOM을 이용한 화상심포지엄 방식으로 가졌지만, KCCJ의 목사, 신도, 그리고 타교단의 관계자 포함해서 약 40여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인권심포지엄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의 문제와 입관법 개악에 관한 내용으로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씨의 발제와 입관법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코마이(駒井知会)변호사의 강연, 그리고 당사자의 증언을 듣고, 5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자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으로 입관법 개정문제에 대해 듣게 되었다는 목소리부터, 차별받았던 제일한국인들이 앞장서서 난민에 대한 차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앞으로 난민 문제, 입관법 개정문제에 다른 교단, 교파들과 협력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하였다. 짧은 시간이었고,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전보다 일반 신도들의 참가가 늘었던 점,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익한 심포지엄이 되었다.

(보고 : 사회위원회 신용섭목사)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 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심포지엄 발제

「코로나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입관법 개악」

사토 노부유키 (『RAIK통신』편집장)

코로나 감염병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세계적인 확대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도 의료 접근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소수자를 직격했다. 특히 아시아계 이주민들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헤이트 클라임(Hate Crime)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능 실습생(약 41만명) 등, 이주 노동자는 해고나 퇴직을 강요당하고,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학비와 생활비를 얻고 있는 유학생(약 35만명)은 직장을 잃고 게다가 모국에 돌아가려 해도 출국할 수 없는..... 또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는 난민 신청자(약 1만명)과 초과 체류자(약 8만명)는 더한 궁지에 몰렸다.

이와같은 비명이 매일 같이 각지의 교회와 시민 단체, 노동조합에 전해지고 있다. 감염병·대량 실업·헤이트 클라임, 그것은 구미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에도 출현하고 있다.

‘그녀는 아프리카의 모국에서 박해를 받고 6년 전에 일본에 난민 신청. 일본인 남성과 만나서 아이를 낳음.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곧 행방 불명. 또한 출산 직후 난민 신청의 결과는 인정 되지 못하고, 그 날로부터 가석방 되고, 주민표도 없어졌다.’ (30대 어머니과 유아)

그녀는 지난해 우리의 <이민·난민 긴급 지원 기금>에서 지원 한 1,645명 중에 1명이다.

지금 일본 국회에서 심의중인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개정안은 이러한 난민 신청자를 국외로 추방하려고 한다.

열악한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를 외국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G7(주요 선진국) 각국의 1년간의 난민 수와 인정율은 독일 56,583명(23.0%), 미국 35,198명(35.4%), 프랑스 29,035명(19.2%), 캐나다 16,875명(56.4%), 영국 12,027명(32.5%), 이탈리아 6,488명(6.8%)이지만, 일본의 인증수는 불과 42명,

G7各国の難民認定数:2018年

国名	難民認定／不許可決定数	難民認定者数(認定率)	人口10万人あたりの難民認定数	補完的保護者数
ドイツ	245,677人	56,583人(23.0%)	68人	48,961人
アメリカ	99,394人	35,198人(35.4%)	11人	—
フランス	151,030人	29,035人(19.2%)	45人	17,917人
カナダ	29,909人	16,875人(56.4%)	46人	—
イギリス	37,062人	12,027人(32.5%)	18人	2,451人
イタリア	95,202人	6,488人(6.8%)	11人	24,172人
日本	16,596人	42人(0.25%)	0.03人	40人

인정율은 0.25%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열악한 일본의 난민 인정 제도에 대해 국제 인권 기관은 반복하여 일본 정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자유권 규약 위원회는 2008년의 총괄 소견에서 ‘신청 수와 관련하여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상태에 대하여 우려한다.’ 며, 또한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는 2018년에 ‘당사국의 매우 낮은 난민 인정율(11,000건의 신청중에 19건)’에 우려를 표명했다.

왜 일본은 인정율 1% 이하라는 낮은 난민 인정 제도인가? 일본 정부는 세계에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번에 장기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목으로 난민 신청자와 초과 체류자를 쉽게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개정 방안을 내고 있다. 그러나 난민 신청자들의 장기 수용 문제의 근본은 인정율 1%에도 미치지 않는 난민 인정 제도에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정부 개정안은, 재류 자격을 잃은 난민 신청자 및 초과 체류자를, 사법 심사없이 모든 무기한 입관 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입관 수용 제도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있는 실무사회가 지난해 8월에 이것을 자유권 규약을 위반하는 ‘자의적 구금 제도’라고 비판하고, 일본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시정 조치가 결여되어 있다.

또한 정부 개정안에서는 귀국하면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한 난민 신청자와 이미 일본인과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초과 체류자 등, <귀국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현실을 무시하여 <송환 거부죄>를 신설. 또한 입관 시설에서 가석방된 사람의 <감리 조치>제도와 가석방 중에 도망에 대한 <가석방 도망죄>를 신설. 게다가 난민 신청중에는 추방할 수 없기 때문에 3년 이후의 난민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 송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정부의 개정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난민 인정 제도·입관 수용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개악(改悪)>인 것이다. 3월 31일 유엔의 특별 보고관 등 4명이 이 새로운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서한을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시민사회와 교회의 대처

정부의 개악안에 대해 일본 변호사 연합회를 비롯한 각지의 변호사회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 단체의 요청에 의한 <입관법 개악 반대> 서명은 한 달에 95,000명 이상의 서명이 모였으며 또한 마이너리티티선교 센터가 국내외의 교회에 호소 교회 공동 성명은 이미 50개 이상의 교파·교회 관계 단체에서 찬동을 얻었다. 이들은 4월 22일에 입관청장관에게 제출한다.

코로나 재난으로 궁지에 몰리고 더욱 개악법에 의해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빼앗겨 버리는, 이런 사회가 도래해 버리는 일에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